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의 동향 분석 : 어휘 지식 유형과 차원을 중심으로

이혜진* · 여승현** · 띠예다나뵐*** · 류제훈****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 163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어휘 지식 유형, 어휘 지식 교육 차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별로 대체로 교수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지식 유형 차원에서는 의미 지식 연구가, 교육 차원에서는 심화 차원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매체, 학습자 참여, 실제 사용 맥락을 반영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차원적 어휘 지식, 학습자 경험, AI 기반 학습 환경, 평가 도구 개발을 고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어휘 교육, 어휘 교수·학습 방안, 어휘 지식, 연구 동향

* 제1저자, 고려대학교 박사수료(한국어문화교육학 전공)

** 제2저자, 고려대학교 석사과정(한국어문화교육학 전공)

*** 제3저자, 고려대학교 석사과정(한국어문화교육학 전공)

**** 제4저자, 고려대학교 석사과정(한국어문화교육학 전공)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들이 어떠한 어휘 지식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휘 교수·학습 방안을 어떠한 차원에서 제안하거나 검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한다.

어휘 교육은 언어 사용과 언어 교육에서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적인 영역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 발음, 담화, 화용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지만, 실제 언어 수행에서 학습자가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휘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조현용(2000)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시 어려움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초급에서는 문법 44%, 어휘 28%, 발음 28%로 나타났으나, 중급에서는 어휘 47%, 발음 30%, 문법 19%, 고급에서는 어휘 64%, 문법 18%, 발음 18%로 나타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휘가 주요한 어려움으로 인식됨을 밝혔다. 또한 한국어 능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초·중·고급 모두 어휘가 높게 나타나 한국어 학습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는 전반적인 한국어교육 연구의 변천과 유사하게 200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 교수 방안 연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에 내용학적 측면¹⁾에 편중되어 나타나던 연구 경향이 점차 변화하였다. 즉, 어휘 자체의 특성, 어휘 의미, 어휘 목록, 어휘 체계 등을 다루는 내용학적 연구와 함께, 이를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교수학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 내용학적 측면이라 함은 강현화(2011)과 강현화(2013)에서 교수학적 측면과 대비하여 사용한 말로 어휘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닌 어휘 교육에 있어서 내용에 해당하는, 어휘에 관한 국어학적, 언어학적 연구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201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주안(2019), 오은화(2020)가 있다. 정주안(2019)은 시기별, 주제별, 대상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다양한 학습자의 언어권, 학습목적, 수준별 연구와 다양한 어휘 종류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점은 오은화(202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어휘 종류와 연구방법, 교육 방안 제시 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실험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매체나 교수법을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분석 대상을 학위논문의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이에 본고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에 초점을 두어 각 연구에서 제안된 교수·학습 방안이 실제로 어떠한 어휘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어휘 교육의 어떠한 차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특정 어휘 항목이나 어휘의 범주를 어떠한 절차나 활동, 자료 등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지를 다루기 때문에 어휘 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화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루는 어휘 교육이 어떠한 어휘 지식을 중심으로 하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원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하나의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의 형태, 의미, 통사적 결합, 사용 맥락, 사회문화적 제약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휘 교육은 어휘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어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어휘 사용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높이며, 어휘 간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심지연, 2022).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어휘 지식 유형과 교육 차원에 따라 질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내용적 특징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기존 논의

국내의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사나 연구 동향에 대한 논의는 조현용(2005)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조현용, 2005; 이준호, 2008)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응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후에는 문금현(2010), 원미진(2011), 강현화(2011), 강현화(2013) 등의 연구가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문금현(2010)은 어휘론이 한국어 어휘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음을 규명하면서 어휘 제시 방법, 학습 단계별 중점 교육 등 교수법 관련 정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원미진(2011)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어휘 교수 방법과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을 쟁점별로 살펴보았으며 어휘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현화(2013)는 학습자 특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학적 연구가 제한적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201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에서는 조현용(2005), 이준호(2008)에서 제기된 것과 유사하게, 교수법이나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수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어휘 교육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 동향을 살피는 논의도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 동향 분석이 등장하였다. 허예인·조현용(2023)과 오은화(2020)에 따르면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가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힌다. 더불어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 동향 분석도 등장하였다. 함은주(2015)는 어휘 교수·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폈고, 원미진(2017)은 어휘 교육 방법이나 교수 방법의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지영(2018)은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학위논문을 대상으

로 연구를 분석한 정주안(2019), 오은화(2020)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언어권, 학습 목적, 숙달도에 따른 연구와 다양한 어휘 종류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오은화(2020)는 어휘 교육 방안 연구로서 실험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매체나 교수법을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허예인·조현용(2023)이 최근 10년간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을 세분화하였다. 특히 주제별로는 어휘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음을 밝혔으며, 내용학적 측면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 연구와 같이 특정 영역에 편중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활발히 다루지 않은 어휘 유형이나 학습자 집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임채훈(2025)은 어휘 교수·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교육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제공하는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문제에 대한 개별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하면서도 실제 어휘 교수·학습 현장과 관련된 연구의 논의와 향후의 연구 방향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휘 교육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동향 분석도 점차 분석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전반의 축적 양상과 한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학위논문, 특정 학습자, 특정 목적, 특정 연구방법 등으로 분석 범위가 세분화되었다. 또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기준 역시 보다 세부화되고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어휘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을 밝히지만 개별 연구가 제시한 교수 방안이나 학습 방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어휘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핀 연구로 정주안(2019)와 오은화(2020)이 있지만 분석 대상을 학위논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술지 논문을 포함한 한

국어 어휘 교육 연구 전반에서 교수·학습 방안이 어떠한 양상으로 제시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한편 국외의 어휘 교육 연구 동향 분석은 점차 어휘 교육 연구 전반의 양적 추이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어휘 학습, 교수 전략, 기술 기반 어휘 학습, 학습자 중심 접근 등 보다 초점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adzuan and Arif(2025)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ESL과 EFL 환경에서의 영어 학습자 대상의 어휘 학습 연구 338편을 분석하여, 어휘 학습 연구의 증가 추이와 연구가 모바일 보조 학습(MALL), 컴퓨터 보조 학습(CALL), 플립드 러닝,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과 결합되며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기술 기반 어휘 학습 연구(Feng, 2025), 어휘 교수와 기술의 연계 연구(Mohd Zainol et al., 2025) 등과 같이 학습 혹은 교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기술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역시 어휘 교육 연구에서 교수와 학습 방안에 초점을 맞춰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인 임채훈(2025)은 어휘 교수·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제기되는 교육적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어휘 교수·학습과 관련된 논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살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들이 어떠한 어휘 지식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휘 교수·학습 방안을 어떠한 차원에서 제안하거나 검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설정

한국어 어휘 교육의 구성 요소는 ‘어휘 지식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원미진, 2019).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어휘 지식에 대해서는 어휘와 어휘 능력, 어휘 지식의 의미, 어휘 정보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용 어휘와 어휘 목록의 선정, 어휘 교육의 범위 등이 다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휘 습득과 효과적인 어휘 교수 방안, 어휘 교수·학습 과정, 어휘 학습 전략 등이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어휘량과 어휘 능력 측정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원미진, 2019; 임채훈, 2025).

그러나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어휘 지식의 문제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안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 교육 연구는 단순히 한자어 목록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자어의 형태 구성 원리, 의미 형성 방식, 조어력 등을 어떻게 교수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유의어 교육 연구 역시 의미 변별이라는 지식 유형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문맥, 말뭉치, 틀 의미론, 사용 실태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연어 교육 연구는 어휘의 결합 관계와 사용 양상을 주요 지식으로 삼고, 이를 어휘장, 공기어, 문맥 초점화, 과제 활동 등을 통해 교수·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교수법이나 매체가 활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을 넘어 해당 연구가 어떠한 어휘 지식을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휘 지식을 어떤 교육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휘 지식은

형태지식, 의미지식, 통사지식, 사용지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심지연, 2022), 어휘 교육의 차원은 어휘량을 확대하는 넓이 확장, 개별 어휘 혹은 특정 어휘 지식의 측면을 정교화하는 깊이 심화, 어휘 지식의 정확성·유창성·자동성을 높이는 강도 강화, 어휘 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조직·통합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Nation,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관련 연구는 시기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관련 연구는 어휘 지식 유형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셋째,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관련 연구는 어휘 지식 차원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3.2. 연구 대상

본고는 어휘 교수·학습 연구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을 키워드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학술지 논문 중에서도 KCI, ESCI, KCI우수 등재 논문으로만 한정하였다.

이에 ‘한국어 어휘 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599편의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후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 이외의 연구, 동향 연구, 열람 제한 논문 등은 제외시켰으며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 ‘영어 교육’ 등 한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 없는 연구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 어휘에 관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초점이 어휘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논문들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학술논문 664편을 추렸다.²⁾

2) 한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한 최초 학술지 논문으로서 ‘박희숙(1975)의 제일교포를 위한 국어 어휘지도 연구’가 검색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들 중에서 교수 및 학습과 관련한 연구만 추려냈다. 교수·학습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³⁾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교수 방안 및 전략, 학습 전략, 수업 모형,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편 결론이나 제언 부분에서 간략하게 어휘 교수와 학습 등에 관한 방안을 언급한 것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어휘 목록을 구축하는 연구에 관해서는 연구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어휘가 제시되어야 한다든지, 어휘 목록에 있어서의 위계를 두고 설정하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단순히 어휘 목록을 구축하는 연구는 제외시켰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 학습 혹은 사용 양상과 관련해서도 어휘 의미 유추 요인을 분석했다거나 인식이나 요구를 조사했지만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 없는 것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일반론적인 성격의 어휘 교육을 다룬 연구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추려진 연구는 총 163편이다.

3.3. 분석 기준

어휘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물을 분석하고자 어휘 지식의 유형 및 차원에 관한 논의들(심지연, 2022; Nation, 2013)을 참고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식 유형의 경우는 해당 연구물에서 제안하거나 검증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어휘 지식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식 차원도 교수·학습 방안이 어떠한 어휘 지식의 측면을 초점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휘의 수를 넓히는 것과 관련한 것은 ‘넓이 확장’, 어휘의 의미나 다양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깊이 심화’, 어휘를 잘 이해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것은 ‘강도 강화’, 여러 다른 어휘들과의 조직 혹은 통합과 관련한 연구는 ‘조직·통합’

3) 어휘교육이 초점이 아닌 문화 교육, 국어 교육 등인 것이 발견되어 삭제하였다.

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준이다.

<표 1>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 동향의 분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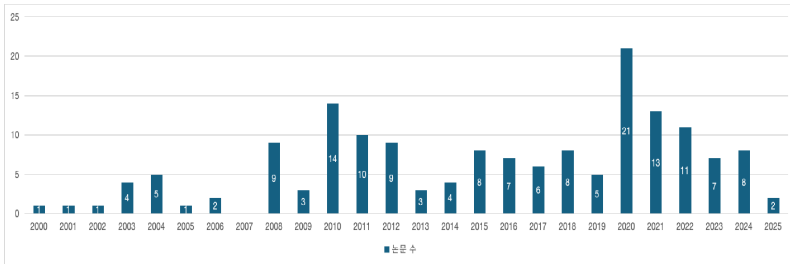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시기	연구 논문 출판 연도	
어휘 지식 유형	형태 지식	음성 인식(듣기) 지식, 철자 인식(읽기) 지식, 철자 산출(쓰기) 지식, 음성 산출(말하기) 지식, 품사 지식, 활용 지식, 단어 형성에 관한 지식(조어법, 합성어, 파생법), 동사 유형(능동·피동/주동·사동 등)에 대한 지식
	의미 지식	형태에 상응하는 의미 지식, 다의어·동음이의어 지식, 관계어 지식(유의·반의/상하/계열 관계)
	통사 지식	통사(논항 구조) 지식, 연어 지식, 호응 지식
	사용 지식	구어·문어, 격식·비격식 상황, 사회적 관계(친소 및 존비), 사용 제약, 사용 효과, 적절성, 빈도
어휘 지식 차원	넓이 확장	알고 있는 단어의 수와 관련
	깊이 심화	단어를 안다는 것의 여러 측면 또는 측면의 일부가 축적된 것
	강도 강화	각 측면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기에는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가
	조직·통합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한 지식이 서로 얼마나 잘 관련되어 있는가

4. 분석 결과

4.1. 시기별 분석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연도는 2000년부터이다.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2000년부터 등장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총 163편의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연구 수가 많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14편, 2020년에는 21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가장 활발한 연구 양상을 보였다. 다음 <그림 1>은 시기별 연구 편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시기별 연구 분포



최초의 연구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어휘 게임의 방법과 예를 제시한 조현용(2000)⁴⁾이다. 2000년대 초반 연구들은 어휘 게임(조현용, 2000), 연어 학습(문금현, 2002), 반복 학습(김계화, 2003),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해영, 2003) 등이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 어휘 교육, 어휘 숙달을 위한 교수 방법, 연어 학습 방안 등 실제 수업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 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문금현(2002)은 연어 학습 방안을 통해 실제 사용 맥락 속 어휘 결합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이해영(2003)과 김계화(2003)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어휘 숙달을 위한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구 주제가 교수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2010년 이전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 전략과 관련한 연구는 2편(이재욱·남기춘, 2001; 박수현, 2008)이며 수업모형과 관련한 연구는 1편(정수진, 2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 활동과 어휘 제시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연구 주제가 점차 다양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나은미(2008)는 유추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문금현(2011a, 2011b, 2012)는 어휘장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시간·인간·음식

4) 이 연구에서는 자모 교육 단계와 초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게임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한국인의 성(姓)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게임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등 다양한 범주의 어휘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는 어휘 간 관계망과 실제 사용 맥락을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김메리(2010), 최원평(2011)은 연어와 어휘당어리 중심 어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민우(2012a, 2015, 2017, 2018)는 반의관계와 의미관계, 문맥초점화를 활용한 어휘 학습 효과를 분석하면서 의미망 중심 어휘 교육 연구를 확장하였다. 한편 이영제(2014)와 임춘매(2017)는 말뭉치 기반 공기어 및 연어 분석을 활용하여 실제 사용 빈도와 결합 관계를 반영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습 전략 연구와 수업모형 연구가 매년 한두 편씩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상은·김영주(2011)는 기억 강화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유민애(2014)는 의미 추측 전략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업모형 연구에서는 SIOP 모델 활용 연구(정유남, 2012)와 플립드 러닝 기반 연어 교육 연구(김규훈, 2015)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연구로 모바일 학습 연구(심형철·심혜령, 2011), ‘퀴즐렛’ 활용(안한나, 2018)과 멀티미디어 기반 어휘 교육 연구(박진화·박미희, 2019) 등도 등장하였다.

202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과 학습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더욱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환경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매체 활용 연구와 학습자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연구에는 김지은(2020)이 SNS 기반 어휘 학습 활동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박소연(2021)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매체활용의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신현규(2020), 이영희(2020), 정다솜·유승욱·권순희(2021), 화택화·박덕유(2021), 김명희·정윤자(2022), 이바른(2022) 등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 자기주도 학습, 상호작용 중심 학습 등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시기는 다르지만 ESL과 EFL 환경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학습 연구가 2016년 이후 급증한 것과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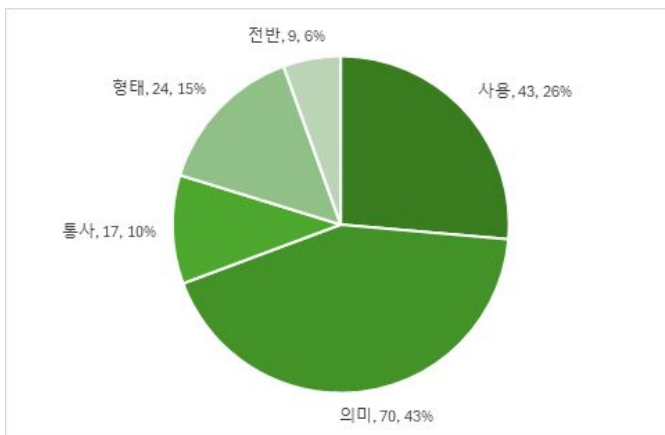
물려 기술 기반 교수법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양상(Radzuan & Arif, 2025)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김하나(2020)의 명절 어휘장 교육, 장석진(2021)의 요리 문화체험 기반 어휘장 교육, 조혜연·우인혜(2022)의 초성 게임 활용 어휘 교육 등과 같이 학습자 참여와 실제 과제와 관련한 연구도 이뤄졌다.

4.2. 어휘 지식 유형별 분석

어휘 지식 유형별 연구 현황은 각 연구가 어떠한 어휘 지식에 초점을 맞추었는지에 따라 분류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의미 지식이 총 70편(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용 지식은 43편(26%), 형태 지식은 24편(15%), 통사 지식은 17편(1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편(6%)은 특정 어휘 지식에 초점을 두기보다 여러 어휘 지식을 아우르는 어휘 전반에 관한 논문으로 분류되었다.

다음 <그림 2>는 어휘 지식 유형에 따른 연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어휘 지식 유형별 분포



4.2.1. 의미 지식

의미 지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형태에 상응하는 의미 지식을 교육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의어·동음이의어와 유의어, 반의어 등 관계어 의미 지식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주로 이뤄졌다. 시기별로는 유의어를 중심으로 어휘 교수 방안을 제시한 박숙자(2003)를 시작으로 2004년에 3편, 2006년에 1편이 이뤄졌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해마다 1편 혹은 5편의 연구가 이뤄지다가 어휘 교수·학습 연구가 급증하는 2020년에 7편의 연구가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그 흐름이 이어져왔다.

먼저 형태에 대응하는 의미 지식을 다룬 연구들은 학습자가 어휘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초기에는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반적 방법론(박숙자, 2003; 한위성, 2004 등)이나 한자어·고유어와 같은 특정 어휘군의 의미 교육(이홍매, 2004; 김경숙, 2010 등)이 주로 논의되었고, 이후에는 유추(나은미, 2008), 의미 추측 전략(유민애, 2014), 파생어(김덕신, 2017), 한자어 의미 제시 방안(박상숙, 2018), 외래어 의미 변화(문금현, 2020), 확장 의미 단위(동뢰, 2020)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접했을 때 형태적·문맥적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지식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의미 지식을 다룬 연구들은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에서 개별 어휘의 의미 범위를 정교하게 다루었다. 문금현(2006), 정수진(2009), 이양혜(2012), 이민우(2012b) 등은 ‘보다’, ‘먹다’와 같은 고빈도 다의어를 중심으로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 문맥에 따른 의미 선택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영환(2013)도 동일한 소리의 어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학습자가 의미를 변별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다뤘다. 이후에는 ‘지금/이제’(박유진, 2019), ‘착하다’(XIA WAN, 2022), ‘맵다’(손유진·김억조, 2023)와 같은 개별 어휘나 유사한 의미 변별을 교육하는 방안을 다룬 연구가 있다.

유의어·반의어 등 관계어 의미 지식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연구는 의미가 유사하거나 대립되는 어휘들 사이의 차이를 변별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의어의 의미 분석(박세영, 2010; 유지연, 2010)이나 반의관계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민우, 2012a)이 제시되었고, 이후에는 유의어의 의미 관계를 밝히기 위해 틀 의미론(마릉연, 2015), 말뭉치 분석(배윤정, 2022), 사용 실태 분석(이연정·이주미, 2020) 등 보다 정교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밖에도 의미 관계와 의미적 관련성, 문맥초점화를 이용한 어휘 교육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이민우, 2015; 이민우, 2017; 이민우, 2018)로 발전하였다. 연구에서 다룬 어휘로는 ‘아름답다/예쁘다/곱다’(유지연, 2010), ‘외롭다/쓸쓸하다/고독하다’(이효정, 2016), ‘이용하다/사용하다’(이연정·이주미, 2020), ‘아깝다/아쉽다/안타깝다’(채은경·강이경, 2022), ‘대단하다/훌륭하다/뛰어나다/엄청나다/굉장하다’(김경은·엄소영, 2024)로 나타났다.

이밖에 어휘장이나 어휘망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나타났다. 문금현(2011), 문금현(2012)은 인간어휘장 등 의미적으로 관련된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신현숙(2011)은 의미망을 활용하여 어휘 간 의미 관계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보은·박종호(2015)는 ‘물건 사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초급 교재의 어휘장을 구축하였으며, 명절 어휘(김하나, 2020)와 요리 어휘(장석진, 2021)를 어휘장으로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적 표현, 비유 등 단어가 가지는 문화적 함의나 관용적 의미,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도 이뤄졌다. 유경민(2008), 조형일·한용혁(2021), 박아현(2022)은 은유와 환유를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의 비유적 의미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은화(2008), 송향근·고건(2009), 최상옥(2023)은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와 같이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최근에는 K-POP(손만복·박덕유, 2023)이나 문화어휘(전정, 2024)를 활용한 연구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루는 연구도 나타난다.

세밀한 의미 변별이 요구되는 감정이나 감각과 관련된 어휘군을 다룬

연구들도 나타났다. 이효정(2015)과 이효정(2016)은 감정 어휘 목록과 유의어 교육 정보를 구축하여 감정 어휘의 의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희(2019)는 맛 표현 어휘의 교재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윤창숙(2020)과 문희진·손경애(2022)는 미각·촉각 관련 의성어·의태어 및 촉각 형용사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을 다루었다.

4.2.2. 사용 지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뤄진 연구는 사용 지식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어휘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관계와 맥락 속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다룬 연구들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어휘를 말하기나 쓰기 표현에 활용하는 능력을 다룬 연구, 어휘 사용 전략 연구, 학습자가 어휘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거나 잘못 쓰는지를 다룬 연구, 매체나 멀티미디어를 통한 어휘 사용 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용적 의미와 감정 표현과 같은 맥락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어휘와 사용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별 어휘, 신어, 공공어휘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서도 연구가 이뤄졌다.

이해영(2003), 김계화(2003), 이미영(2012)은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과 표현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경(2016), 이유림(2020), Lee Yurim(2021)은 어휘 사용 전략과 구어 어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산출 능력을 분석하였고, 한윤정 외(2020), 한수민·김규훈(2023)은 병렬 텍스트 과제와 역번역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사용 능력을 정교화하려는 방향을 보였다.

사용 지식과 관련하여 어휘 학습 전략 및 사용 전략 연구도 이뤄졌는데, 이재욱·남기춘(2001), 박수현(2008), 원미진(2010)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양상과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남상은·김영주(2011)는 기억 강화 전략의 효과를 살폈으며, 박진희·박미희(2019), 이효정(2022)은 자기조절학습과 주기적 반복 시스템을 통해 어휘

지식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이경(2016), 최일·김원경(2017) 등은 학습자가 산출 상황에서 어휘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학습자의 실제 어휘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수 방안을 도출한 연구들(김지혜, 2011; 이병운, 2012 등), 매체·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어휘를 반복적으로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조현용, 2000; 김성애, 2008 등)이 나타났으며, 박진희·박미희(2019), 정다솜 외(2020), 이효정(2022), 정연희 외(2023)는 멀티미디어, 모바일 게임 앱, 주기적 반복 시스템, 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어휘 학습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문화어휘와 사회문화적 사용 지식 연구도 이뤄졌다. 임서연(2005), 손남익(2015), 정수진·김진수(2016)는 문화적 의미를 반영한 어휘 교육을 논의하였고, 이경(2024)은 다국적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유형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보현(2024), 박수진·백선주(2025)는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루며, 신어 교육이 현대 한국 사회와 담화 공동체의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관용표현과 감정 표현과 관련한 연구도 이뤄졌는데 정유남·최창원(2020),崔洪烈(2020), 송대현(2020)은 관용표현의 의미와 실제 사용 맥락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노정은·장미정(2016)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위한 감정 어휘 교육을 다루었다.

또한 학습자의 목적, 장면, 역할, 담화 공동체에 따라 실제 사용 맥락을 고려한 어휘를 다룬 연구도 다수 나타났다. 심형철·심혜령(2011)은 정작목적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학습 어휘 콘텐츠를 구축하였고, 노정은·장미정(2016)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위한 감정 어휘 교육을 제안하였다. 화택화·박덕유(2021)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즈니스 어휘를 선정하고 애플리케이션 기반 교육과 연결하였으며, 정연희 외(2023)는 전공 기본 한국어 어휘 학습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황유미·계문함(2022)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는 직업 목적 맥락에서 필요한 어휘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고, 김규훈(2024)은 공

공 어휘 교육을 통해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어휘 사용 지식을 다루었다.

4.2.3. 형태 지식

형태 지식 연구는 음성 인식이나 철자 인식과 같은 어휘 지식도 포함되는 범위지만, 연구로는 형태소와 접사, 파생, 한자어 구성, 신어 형성과 같이 단어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먼저, 단어 형성법과 파생어, 접사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단어 내부 구조와 조어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으로 보고 이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관식(2003)은 파생어 분석과 접미사의 어원 이해를 통해 어휘 구조를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지옥(2009), 신희삼(2010), 이양혜(2011)는 파생어와 단어 형성 원리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희경(2012)은 한국어와 일본어 접미사의 대조적 특징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본관(2017)은 유사 접사를 중심으로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어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조형일(2021)은 ‘-하다’와 같은 서술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의 원리를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한자어의 구조와 한자음, 한자 형태소, 모어와의 대응 관계를 활용한 한자어 교육이 이뤄졌다. 김수희(2004), 마금선(2010)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과 전략을 논의하였고, 류투안(2011), 손유진·장혜진(2021), 신현규(2020)은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에서 한자음과 모어 대응 관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유정(2013)은 일본인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음 교수를 통한 한자어 교육을 제안하였으며, 박세진(2014), 미시라 하시 쿠마르(2018), 이박문·박덕유(2021)는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한자어 교수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연구이다. 조어 방식과 형태적 특성을 이해하게 함으로

써 학습자의 어휘 해석과 어휘 확장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은희(2015)는 신어 중 파생어를 중심으로 신어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고, 이래호(2019)는 어원 정보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보현(2020)은 신조어를 단어 형성법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김덕신(2021)은 플립러닝과 어두음절어 신조어 교육 사례를 통해 신조어의 형성 원리와 교육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2.4. 통사 지식

마지막으로 통사 지식으로 분류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언어 지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구문 구조와 호응 지식 중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언어·공기 관계 중심 연구는 통사 지식 관련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금현(2002), 한송화·강현화(2004)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언어 학습의 필요성과 교수 방안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시하였으며, 김원경(2010), 김선효(2010), 나카가와 아키오(2010)는 학습자 대상과 언어 유형을 구체화하여 언어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나카가와 아키오(2010)는 ‘체언+용언’형의 언어를 중심으로 어휘 결합이 한국어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표현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언어 교육의 방법이 보다 다양화되어 이영제(2014)는 고빈도 명사 공기어를 활용하여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규훈(2015)은 플립드 러닝 기반 언어 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임춘매(2017)는 ‘나다, 들다’와 같은 고빈도 동사의 언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영희 외(2021)는 K-pop 가사에 나타난 언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채영(2022), 김춘화(2024)는 관용 표현과 관용어를 성구적 단위로 다루어 고정적·관습적 표현의 학습과도 연결시켰다.

구문·논항 구조 중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휘가 실제 문장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정미(2015)는 형용사 ‘좋다’의 구문 특성과 교육 정보를 제시하여, 특정 어휘가 어

떤 문형과 결합하여 사용되는지를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이설연(2016)은 ‘어휘-구문 상호 학습’ 교육 방안을 제안하면서, 초급 학습자에게 어휘와 구문을 분리하여 제시하기보다 어휘가 실제 문장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함께 학습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호응 지식 중심 연구로는, 강혜림(2010)이 부정성을 가진 부사 ‘전혀’와 ‘별로’를 대상으로, 이들 부사가 어떤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휘 교육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는 특정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문법적 호응 관계와 사용 제약을 고려한 교육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통사 지식 연구가 다른 어휘 지식 유형에 비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사 지식의 경우 주로 문법 교육의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문, 문형, 호응, 결합 제약 등은 어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문법 교육이나 표현 교육의 영역과도 더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련 어휘 교육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어휘 교육에서도 자연스러운 표현 능력과 산출 정확성을 위해 어휘의 통사 지식을 함께 교육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의 어휘 지식 유형에 특정되기보다 어휘 교수와 학습의 전반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형태·의미·통사·사용 지식 중 어느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한국어 어휘 교육의 필요성, 교수·학습 원리, 학습 전략, 매체 활용, 수업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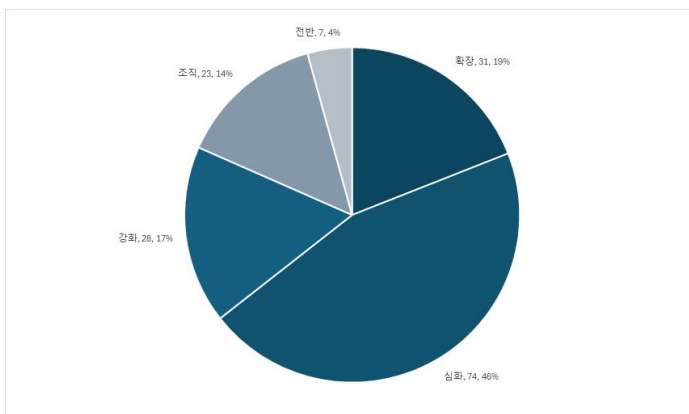
예를 들어 김성희(2008), 신형욱(2010), 金順吉(2014)은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반적 방향이나 기초 단계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특정 어휘 지식보다 어휘 교육 전반의 교수 방안을 다룬 연구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유림·김영주(2016), 조희영(2020), 정서영(2020)은 어휘 학습 전략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 다양성, 어휘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안한나(2018), 김혜민·김용하(2018), 설교·박덕유(2020)는 각각 퀴즐렛, K-팝 가

사, 어휘 학습용 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어휘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장미정(2020), 김향(2020)은 상호동료교수나 하브루타와 같은 학습자 참여 중심 활동을 어휘·문법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였고, 심지연(2025)은 인지심리학의 기억 부호화 논의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3. 어휘 지식 차원별 분석

어휘 지식 차원별 연구 현황은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어떠한 어휘 지식의 차원을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화 차원에서의 연구가 총 74편(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휘의 넓이를 넓히는 확장 차원이 31편(19%), 어휘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강화시키는 강화 차원이 28편(17%), 조직·통합 차원이 23편(1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휘 지식의 여러 차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다룬 연구가 7편(4%)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3>은 어휘 지식 차원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다룬 연구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 어휘 지식 차원별 분포



본 절에서는 어휘 지식의 측면에 따라 어휘 지식의 폭을 넓히는 확장,

어휘 지식의 깊이의 심화, 사용의 강도를 높이는 강화, 어휘 간 관계를 통합하는 조직으로 나누어 각 차원에 따라서 연구들을 유형화하여 그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겠다.

4.3.1. 확장 차원

어휘 교육에서의 확장 차원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의 수와 범위를 넓히도록 교수·학습하는 차원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모어 지식, 문맥 추론 능력, 학습 전략, 실제 자료,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하며 축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휘 교육을 다룬 연구는 초기에는 한자어, 기본어휘, 신문 자료 등을 활용한 어휘 확장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학습도구어, 감정 어휘, 비즈니스 어휘, 전공 어휘, 코로나19 관련 어휘 등 학습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어휘군 구축 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신어·파생어·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연구, 문맥 추론과 배경지식 활성화를 활용한 전략 중심 연구, 모바일 앱·웹 애플리케이션·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확장 차원의 연구를 (1) 매체·디지털 콘텐츠 기반 확장, (2) 학습 전략 기반 확장, (3) 한자어·모어 대조 기반 확장, (4) 문화·실제자료 기반 확장, (5) 어휘 목록·목적별 어휘군 구축, (6) 신어·파생어·단어 형성 원리 활용, (7) 심성어휘·인지 기반 확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2>는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의 확장 차원 유형 분류

유형	설명	해당 연구
매체·디지털 콘텐츠 기반 (6)	모바일, 웹, 앱, SNS 등 활용하여 어휘 학습 환경 구축	심형철·심혜령(2011), 신현규(2020), 화택화·박덕유(2021), 김명희·정윤자(2022), 정연희 외(2023), 김민숙(2024)

전략추론 기반 자기주도 확장 (6)	의미 추측, 문맥 추론, 배경지식 활성화 및 다양한 어휘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를 추론·습득하고 확장하도록 함	마금선(2010), 장은미(2010) 유민애 (2014), 이유림·김영주(2016), 이민 우(2018), Lee Yurim(2021)
한자어·모어 대조 기반 (5)	한자, 한자음, 한자어, 모어 대응 관계를 활용하여 한자어 지식과 기존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량 확장하도록 함	김수희(2004), 심혜령(2008), 김유정 (2013), 박세진(2014), 미시라 하시 쿠마르(2018)
문화 및 실제 자료 기반 (5)	신문, 영화, 드라마, 그림 자료 등 실제 자료와 문화 맥락을 활용하여 어휘 사용 범위와 표현 능력을 확장하도록 함	이홍매(2004), 정연숙·이병운(2008), 신정아(2020), 송대현(2020), 崔洪烈 (2020)
어휘 목록·목적별 어휘군 구축형 (4)	특정 학습 목적과 학습자 집단에 필요한 핵심 어휘 목록 및 어휘군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 학습 범위를 확장하도록 함	김지애(2010), 김경숙(2010), 이효정 (2015), 수시아(2023),
신어·파생어·단어 형성 원리 활용 (4)	단어 형성 원리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확장	이래호(2011), 최은희(2015), 김덕신 (2017), 김덕신(2021)
심성어휘·인지구 조 분석형 (1)	직접적인 교수·학습 방안 제안보다는 학습자의 어휘 확장 과정과 의미 연결 구조를 인지적으로 분석함	정해권 외(2021)

매체·디지털 콘텐츠 기반 확장 연구에서는 정착목적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어휘 콘텐츠 방안을 제시한 심형철·심혜령(2011)이 있다. 한편 신현규(2020)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한자어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어휘를 선정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방안을 제안한 화택화·박덕유(2021) 연구가 있다. 김명희·정운자(2022)에서는 줌, 카카오톡, 위챗, 웹툰 앱, 포털 앱 등을 활용하여 상황 중심의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연희 외(2023)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한국어 어휘 학습을 위해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단계별 학습과 자국어 설명을 통해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의 효과와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한편 김미숙(2024)는 SNS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학습자 반응

을 반영해 개선한 실행 연구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흥미를 높이는 교육 효과를 확인한 연구였다.

학습자의 학습 전략 기반 연구로는 2010년에 두 편의 논문이 나타났다. 마금선(2010)은 대조분석을 통해 오류 유형을 사전에 제시하고, 인지적·정의적·사회문화적 전략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은미(2010)는 텍스트 기반의 문맥 활용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수업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도와 어휘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어휘 지식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한편 유민애(2014)는 실험 연구를 통해 읽기 과정에서 모국어 기반 선다형 어휘 주석을 활용하는 것이 중·고급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민우(2018)에는 배경지식 활성화와 문맥추론을 활용하여 주제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확장하는 암시적 어휘 제시 방식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과 내용 이해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Lee Yurim(2021)는 어휘 확장을 위해 새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며 암기하기, 새 단어를 사용할 상황 떠올리기, 문맥을 통해 의미 추측하기 등의 전략을 교수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략은 쓰기 영역에서 뚜렷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자어·모어 대조 기반의 연구에서는 단어 형성, 한자 병기, 의미관계, 발음 대조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한 김수희(2004)가 있다. 심혜령(2008)은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여 어휘 학습 동기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한자어·문화적 공통성과 발음 유사성을 활용한 어휘 확장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유정(2013)은 한자어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주제·기능별로 한국어 속달도에 맞게 내용 측면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한자음 및 한자어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시라 하시 쿠마르(2018)는 기존 한자 교재의 수준 부적합성, 낮은 실용성, 비효율적인 텍스트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힌디어를 교수 언어로 활용하고 사마스(Samasa)⁵⁾를 적용한 의사

5) 사마스(Samasa)는 두 개 이상의 어휘나 접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힌디어 문법과 어휘 형성 체계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실제자료 기반 확장형 연구에서는 신문을 활용하여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단어 이웃’ 방식의 어휘 학습을 통해 단어 확장을 제안한 이홍매(2004)가 있다. 또한, 정연숙·이병운(2018)은 PWIM(Picture Word Inductive Model)을 활용한 학습자 참여 중심의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정아(2020)는 단편영화를 활용하여 어휘를 확장하고 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송대현(2020)은 드라마 <도깨비>를 활용하여 한국어 관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어휘 목록·목적별 어휘군 구축을 통해 어휘를 확장하는 방안들도 있었는데, 그중 김지애(2010)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필요한 학습도구어 목록을 선정하고, 수업의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어휘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반의어·유의어·경어·동음이의어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어휘 지도 방안을 제시한 김정숙(2010)이 있다. 한편 이효정(2015)은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시아(2023)는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핵심 어휘를 선정하여 등급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와 접사를 활용한 단어 형성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지식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신어·파생어·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연구로는 이래호(2011)가 있는데, 신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해 어휘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최은희(2015)는 신어의 파생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접사 분석 양상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어휘 학습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연구로는 김덕신(2017)이 있다. 또한 김덕신(2021)은 어두음절형 신조어를 활용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해권 외(2021)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가 심성어휘집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 실험 연구이다. 유의어·반의어 등 의미 관계를 함께 제시하는 어휘 교육과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한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절에서는 어휘 확장 연구들을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자어·모어 대조, 문화·실제자료 활용, 전략·추론 기반 학습, 디지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특정 교수 자료나 전략 제시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AI 기술 등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자기주도 어휘 확장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AI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어휘 확장 양상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심지연(2022)에서도 어휘 신장 교육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어성과 시의성을 갖춘 의사소통 중심 어휘를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매체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휘 확장 연구는 실제성과 교육적 유의성을 함께 고려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3.2. 심화 차원

어휘 교육에서의 심화 차원은 학습자가 개별 어휘나 어휘군을 보다 깊고 정교하게 이해하도록 교수·학습하는 차원이다. 이는 어휘의 형태 구조, 어종의 특성, 의미 관계, 다의적 확장, 결합 양상, 사용 맥락,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차원의 연구는 파생어, 접사, 한자어, 외래어, 신어 등 어휘의 형성 원리와 어종별 특성을 다룬 연구, 다의어·유의어·동음어 등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문화 어휘·감정 어휘·공공 어휘·직업 어휘 등 특정 주제 영역의 어휘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 연어·관용 표현·호응 표현 등 결합 표현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 오류 분석, 어휘 학습 전략, 질적 어휘 지식 평가, 역번역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학습자의 실제 어휘 지식 수준과 사용 양상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나타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심화 차원의 연구를 (1) 형태 및 어종 중심, (2) 의미 관계 중심, (3) 주제 중심, (4) 결합 표현 중심, (5) 학습자 사용 및 전략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유형에 따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심화 연구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설명	해당 연구
형태 및 어종 중심 (21)	파생어, 합성어, 접사, 한자어, 어원, 외래어, 신어	이관식(2003), 이지옥(2009), 신희삼(2010), 이양혜(2011), 류투안(2011), 김희경(2012), 구본관(2017), 박상숙(2018), 이박문외(2019), 이래호(2019), 문금현(2020), 위윤·김정아(2020), 김보현(2020), 소열녕(2021), 손유진·장혜진(2021), 조형일(2021), 이박문·박덕유(2021), 김택신(2021), 김보현(2024), 왕영·이지은(2024), 박수진·백선주(2025)
의미 관계 중심 (17)	다의어, 유의어, 동음어, 의미 확장, 의미 변별	박숙자(2003), 문금현(2006), 정수진(2009), 박세영(2010), 유지연(2010), 이양혜(2012), 이민우(2012b), 박영환(2013), 마릉연(2015), 이효정(2016), 박유진(2019), 이연정·이주미(2020), 배운정(2022), 채은경·강이경(2022), XIA WAN(2022), 손유진·김억조(2023), 김경은·염소영(2024)
주제 중심 (16)	문화 어휘, 공공 어휘, 감정·감각 어휘, 직업 어휘, 의성어·의태어	임서연(2005), 유경민(2008), 김은화(2008), 송향근·고건(2009), 정유남(2012), 손남익(2015), 노정은·장미정(2016), 정수진·김진수(2016), 이은희(2019), 윤창숙(2020), 조형일·한용혁(2021), 문희진·손경애(2022), 황유미·계문함(2022), 이숙진·민진영(2023), 김규훈(2024), 이경(2024)
결합 표현 중심 (12)	연어, 호응 표현, 덩어리 표현, 관용 표현, 강조 표현	문금현(2002), 강혜림(2010), 김원경(2010), 김선호(2010), 나카가와(2010), 이미영(2012), 이경미(2015), 동퇴(2020), 박영희외(2021), 이채영(2022), 손만복·박덕유(2023), 김춘화(2024)
학습자 사용 및 전략 중심 (6)	오류, 사용 양상, 학습 전략, 자료 분석	홍은진(2004), 원미진(2010), 김지혜(2011), 이유경(2012), 한윤정외(2020), 한수민·김규훈(2023)

먼저, ‘형태 및 어종 중심’ 유형은 어휘의 형성 원리나 어종의 특성에

따른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파생어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이관식, 2003; 이지옥, 2009; 이양혜, 2011), 접사를 다룬 연구(김희경, 2012; 구본관, 2017; 조형일, 2021), 한자어를 다룬 연구(류투안, 2011; 박상숙, 2018; 이박문 외, 2019 등), 외래어를 다룬 연구(문금현, 2020), 신어를 다룬 연구(김보현, 2020; 김택신, 2021; 김보현, 2024 등) 등이 포함된다.

그 중 이지옥(2009)은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파생어 어휘 목록의 선정 방안을 제시하고, 도입부터 활동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교수 방법에서의 상황 제시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단어를 유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파생어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박문 외(2019)은 비한자문화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OPIK 초급 어휘를 분석하여 학습할 한자어를 선정하고, 한자어를 글자 단위로 쪼개어 이해시키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상숙(2018)은 한자어의 의미 습득이 어휘력 신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한자 자체를 교육하지 않더라도 낱말의 의미 구성소를 기준으로 한자어를 이해시키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보현(2020)은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에서 신조어를 단어 형성법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단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문맥을 통해 새로운 어휘의 뜻을 추론하게 하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어휘 지식의 깊이를 단어의 형태, 발음, 의미, 연어 등 다양한 지식 요소의 축적으로 보는 Nation(2013)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며, 해당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휘의 깊이를 심화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는 다의어를 다룬 연구(문금현, 2006; 정수진, 2009; 이양혜, 2012 등), 유의어를 다룬 연구(박세영, 2010; 마루연, 2015; 김경은·엄소영, 2024 등), 동음어를 다룬 연구(박영환, 2013) 등과 같이 어휘의 의미 차이와 확장 관계를 통해 어휘를 심화하는 연구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김경은·엄소영(2024)은 말뭉치 분석을 활용하여 ‘대단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엄청나다, 굉장하다’의 공기 명사와 의미 영역을 기준으로 유의어 간 의미 차이를 변별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서 의미 영역에 따라 ‘대단하다 류’의 어휘와 공기 명사의 연어 관계를 보여주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영환(2013)은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동음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붙이다’와 ‘부치다’, 비행기가 ‘뜨다’와 뜸을 ‘뜨다’ 등의 동음어의 의미를 구별하고 문맥 속에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 방안으로는 ‘광고 속 효과적인 동음어 파악’,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형성된 동음어의 의미·형태 파악’, ‘문장의 구조 및 앞뒤 의미 호응 관계를 통한 동음어 의미 파악’ 등 9가지의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였다.

주제 중심 유형에는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다룬 연구(임서연, 2005; 유경민, 2008; 이경, 2024 등), 공공 어휘를 다룬 연구(김규훈, 2024), 감정 및 감각 어휘를 다룬 연구(노정은·장미정, 2016; 이은희, 2019; 문희진·손경애, 2022), 직업 어휘를 다룬 연구(황유미·계문함, 2022), 의성어·의태어를 다룬 연구(윤창숙, 2020; 이숙진·민진영, 2023) 등 특정 주제 영역의 어휘를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숙진·민진영(2023)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성어·의태어 목록을 선정하고, 학습자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목적 학습자들이 노래 가사를 통해 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 의미를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한국 소설을 활용하여 문맥 속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사용 예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규훈(2024)은 공공 어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활동을 제시한 연구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는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하기 등과 같은 실제적 활동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결합 표현 중심’에는 다른 어휘와 결합하는 양상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되며, 연어를 다룬 연구(문금현, 2002; 김원경, 2010; 박영희 외, 2021 등), 호응 표현을 다룬 연구(강혜림, 2010), 덩어리 표현 및 결합 구조를 다룬 연구(이미영, 2012; 동뢰, 2020), 관용 표현을 다룬 연구(이

채영, 2022; 김춘화, 2024), 강조 표현을 다룬 연구(손만복·박덕유, 2023) 등이 포함된다. 그중 김선효(2010)는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의 어휘적 연어를 일본어 대응 방식에 따라 1~5유형까지로 분류하였고, 의역 구조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통사 구조가 다른 유형과 고유한 의미를 지닌 유형의 어휘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나머지 유형은 일반 어휘 학습과 병행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사용 및 전략’에는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김지혜, 2011), 학습자의 오류 분석 및 학습 전략을 다룬 연구(홍은진, 2004; 원미진, 2010), 학습자 자료에 기반하여 어휘 지식을 분석한 연구(한윤정 외, 2020), 학습자의 질적 어휘 지식 평가 연구(이유경, 2012), 역번역 자료 분석 연구(한수민·김규훈, 2023)가 포함된다. 원미진(2010)은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어휘 학습 전략 양상을 분석하고 ‘추측하기’, ‘사전 사용’와 같은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어휘 능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 학습 전략을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심화 차원의 연구는 형태 및 어중·의미 관계·주제·결합 표현·학습자 사용 및 전략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되었으며, 2020년대 이후부터는 신어, K-POP, 공공 어휘 등 실제적이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학습자 사용 및 전략 중심’ 연구가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자 변인과 전략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휘 지식의 깊이와 관련하여 Nation(2013:86)은 “단어 하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휘에 대응하는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들, 또는 그 측면들의 부분들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연(2022:16)은 “어휘를 깊이 안다는 것은 어휘 지식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심화’는 학습자가 어휘의 구조와 의미 관계, 결합 양상,

사용 맥락 등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SNS, 온라인 매체 등 실제 의사소통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교육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4.3.3. 강화 차원

어휘 교육에서의 강화 차원은 어휘 지식의 정확성, 유창성, 기억을 높이도록 교수하고 학습하는 차원이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를 더 잘 기억하고, 빠르게 인출하며,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휘 교육을 다룬 연구는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등장한 초기부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났다(조현용, 2000; 이해영, 2003 등). 게임과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반복 및 흥미 중심의 연구가 초기에 이뤄지다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과 자기조절학습, 디지털 도구, 어휘 관계, 문화 맥락 등을 활용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에 강화 차원의 연구를 (1) 어휘 사용·산출 유창성 중심, (2) 흥미·감각 기반 반복 강화, (3) 어휘 학습 전략·자기조절 강화형, (4) 디지털 도구 기반 강화, (5) 어휘 관계·개념망 중심, (6) 문화·맥락 기반 사용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의 강화 차원 유형 분류

유형	분류 기준	해당 연구
어휘 사용·산출 유창성 중심 (7)	말하기·쓰기에서 어휘를 실제로 사용하게 하고, 오류나 사용 전략을 분석함	이혜영(2003), 김계화(2003), 이병운(2012), 이경(2016), 조경은(2016), 최일·김원경(2017), 이윤희(2020)
게임·흥미·감각 기반 반복 (5)	게임, 그림, 소리, 노래, 시청각 자료, PWIM 등을 통해 어휘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함	조현용(2000), 김성애(2008), 리송월(2008), Jason Bumyong Sung(2013), 강란숙(2017)
어휘 학습 전략·자기 조절	기억 전략, 의미 추론 전략, 상위인지 전략, 자기조절 전략을	박수현(2008), 남상은·김영주(2011), 이경(2016), 최일·김원경(2017),

학습 중심 (8)	명시적으로 교육함	박진화·박미희(2019), 조희영(2020), 정서영(2020), 이유림(2020)
디지털 도구 기반 (5)	퀴즐렛, 앱, 모바일 학습, 웹 기반 반복 시스템 등을 활용함	안한나(2018), 박진화·박미희(2019), 이영희(2020), 이효정(2022), 이바른(2022)
어휘 관계·개념망 중심 (5)	언어, 개념 지도, 한자어 구조, 은유, 의미 관계 등을 통해 어휘 간 연결을 강화함	한송화·강현화(2004), 조경은(2016), 이영희(2020), 신수련·서강보·정해권(2021), 박아현(2022)
문화 맥락 기반 사용 중심 (3)	문화어휘, K-pop, 사자성어, 신문 표제어, 실제 맥락 자료를 활용함	김규훈(2018), 김혜민·김용하(2018), 최상욱(2023)

먼저 어휘 지식의 강화를 실제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사용 능력, 산출 유창성, 표현 정확성과 연결한 유형이다. 이해영(2003)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을 논의하며, 어휘 교육이 단순한 의미 이해가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수행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계화(2003)는 기초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숙달을 위한 교수방법을 제안하며, 학습자가 기본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병운(2012)은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사용 오류 경향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실제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바탕으로 어휘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경(2016)은 고급 학습자의 어휘 사용 전략을 통해 유창성 신장 방안을 논의하였고, 조경은(2016)은 한자어 개념 지도를 활용하여 글쓰기 학습에서 어휘 사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일·김원경(2017)은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사용 전략을 분석하였으며, 이유림(2020)은 발표하기와 회상하여 말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어 어휘 다양성과 전략 사용을 살폈다.

다음으로 흥미·감각 기반 반복 강화 연구들은 어휘 지식의 강화를 반복 노출과 감각, 흥미를 통해 교육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조현용(2000), 김성애(2008), 리송월(2008)은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휘를 부담 없이 반복적으로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게임 기반 연구는 어휘 학습에서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 사용을 통해 어휘의 기억과 인출을 강화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Jason Bumyong Sung(2013)은 멀티모달 입력의 효과를 다루며, 문자, 소리, 이미지 등 복수의 입력 양식을 통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습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강란숙(2017)은 PWIM을 활용하여 그림을 바탕으로 단어를 인식하고 범주화하며,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반복적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시각·청각·놀이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접하게 함으로써 어휘 기억의 강도와 인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학습 전략 및 자기조절 중심 연구들은 학습자의 전략을 다룬다. 박수현(2008)은 한국어 어휘 교재에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남상은·김영주(2011)는 기억 강화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어휘 기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경(2016)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사용 전략을 분석하여 유창성 신장을 위한 전략적 어휘 사용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최일·김원경(2017)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사용 전략을 분석하여 제한된 어휘 지식 안에서도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적·전략적 사용 양상을 보여 주었다. 조희영(2020)은 다문화 초등학생을 위한 어휘 학습 전략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정서영(2020)은 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유림(2020)은 구어 어휘 다양성과 어휘 학습 전략의 관계를 살펴며, 전략 교육이 실제 산출 어휘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디지털 도구 기반 연구들은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 학습, 자기 점검, 개별화된 복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 안한나(2018)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퀴즐렛 어휘 학습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플래시카드형 디지털 도구가 어휘 반복과 기억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박진희·박미희(2019)는 멀티미디어 기반 자기조절학습이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며, 영상, 정보량, 메타인지적 조절이 어휘 학습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영희(2020)는 모바일 기반 한자어 교육을

다루며, 학습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한자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효정(2022)은 주기적 반복법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반복 간격, 학습용 어휘 선정, 정보 구축 방식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바른(2022)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초급 한국어 어휘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유형은 어휘 지식의 강화를 교실 수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 도구를 통해 학습자가 개별 속도에 맞춰 반복·점검·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어휘 관계·개념망 중심 연구들은 어휘 지식의 강화를 체계성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한송화·강현화(2004)는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개별 어휘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지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표현 능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조경은(2016)은 한자어 개념 지도를 활용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반 학습자의 글쓰기 학습을 지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한자어를 개별적으로 암기하게 하기보다 개념망 속에서 조직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이영희(2020)는 모바일 기반 한자어 교육을 통해 한자어의 구조와 조어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고, 신수련·서강보·정해권(2021)은 그림에 대한 어휘 처리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처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어휘 인식과 연결의 문제를 다루었다. 박아현(2022)은 개념적 은유에 기반한 신문 표제어 교육 효과를 살펴며, 은유적 사고와 어휘 추론 전략을 통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유형은 단어를 개별 항목으로 반복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어 관계, 개념 관계, 한자어 구조, 은유적 연결 등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맥락 기반 연구들은 어휘 지식의 강화를 실제 문화적·담화적 맥락에서의 사용 적절성과 연결한다. 김혜민·김용하(2018)는 K-pop 가사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을 제안하며, 노래 가사를 통해 학습자가 어휘를 반복적으로 접하고 실제 문화 자료 속에서 의미와 사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김규훈(2018)은 한국어 어휘 수업에서 생태학적 언어 교수

전략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며, 어휘를 고립된 단어 목록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 관계,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자원으로 보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박아현(2022)은 신문 표제어의 개념적 은유를 활용하여 실제 매체 자료 속에서 어휘 의미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최상욱(2023)은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문화어휘 교육 방안을 연구하여, 사자성어가 단순한 어휘 항목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유형은 실제 자료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휘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화 차원의 연구는 크게 어휘 사용·산출 유창성 중심, 게임·흥미·감각 기반 반복, 어휘 학습 전략·자기조절학습 중심, 디지털 도구 기반, 어휘 관계·개념망 중심, 문화·맥락 기반 사용 중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강화의 개념이 단순 암기나 반복을 넘어, 표현 어휘로의 전환, 전략적 학습, 어휘 지식의 체계화, 문화·맥락 속 적절한 사용 능력의 신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강화 차원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기억, 흥미, 전략 사용, 산출 능력 등을 다루어 왔지만, 어휘 지식의 정확성, 인출 속도, 산출 유창성, 장기 기억 유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도구 활용 연구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 어휘 유형, 학습 목적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하여 학습자의 실제적인 학습 효과를 꾀하도록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4.3.4. 조직 차원

어휘 교육에서의 조직 차원은 어휘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이는 어휘를 형태적·의미적·통사적·문화적 관계 속에서 조직된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직 차원의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어휘 간 관계를 기반으

로 의미를 추론하고, 기억하며 나아가 실제 사용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서도 이러한 조직 차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어휘를 조직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에는 연어(collocation)와 공기어(co-occurrence) 등 실제 어휘 사용에 기반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실제 사용 맥락까지 포함하여 어휘를 조직하려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직 차원과 관련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조직의 중심 원리에 따라 (1) 의미 관계·의미망 중심, (2) 연어 관계 중심, (3) 주제·어휘장 중심, (4) 구문·사용 맥락 중심 조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의 조직 차원 유형 분류

유형	분류 기준	해당 연구
의미 관계·의미망 중심 (7)	유의어·반의어·상하위어·의미장·연상 관계 등을 활용하여 어휘를 조직함	한위성(2004), 나은미(2008), 신현숙(2011), 이민우(2012a), 이민우(2015), 이민우(2017), 이민우(2018)
연어 관계 중심 (6)	연어, 공기어, 어휘덩어리,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어휘를 조직함	Angela Lee-Smith(2006), 김메리(2010), 최원평(2011), 이영제(2014), 김규훈(2015), 임춘매(2017)
주제·어휘장 중심 (7)	특정 생활 주제·문화 범주를 중심으로 관련 어휘를 조직함	이양혜(2008), 문금현(2011a), 문금현(2011b), 문금현(2012), 김보은·박중호(2015), 김하나(2020), 장석진(2021)
구문·사용 맥락 중심 (3)	어휘를 문장 구조·격틀·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조직함	이설연(2016), 조혜연·우인혜(2022), 전정(2024)

의미 관계·의미망 중심 조직 유형은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의미장 등 어휘 간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어휘를 조직하여 교수·학습하고자 하였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어휘를 의미적 관계망 속에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미 변별 능력과 어휘 기억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별 단어의 의미 설명보다 어휘 간 관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연구 초기에 한위성(2004)은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의 의미 관계를 활용한 어휘 제시 방안을 논의하면서, 어휘를 의미망 속에서 조직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민우(2012; 2015; 2017; 2018)의 연구는 의미관계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민우(2012a)는 반의관계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서, 반의어가 의미 대조를 통해 학습자의 기억과 의미 변별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실험 연구로도 이어졌는데, 이민우(2015)는 유의관계와 반의관계를 활용한 어휘 제시 방식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반의관계 중심 제시가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민우(2017)과 이민우(2018)은 의미관계와 문맥조점화를 결합하여, 단순한 의미 분류를 넘어 실제 문맥 속에서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연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연어, 공기어, 어휘덩어리(lexical chunk) 등 실제 언어 사용에서 함께 결합하는 어휘 관계를 바탕으로 어휘를 조직하여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는 어휘를 단순한 의미 단위가 아닌 담화 속 결합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며,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과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강조한다.

Angela Lee-Smith(2006)는 어휘접근법(Lexical Approach)을 기반으로 한국어 어휘를 어휘덩어리(lexical chunk)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자주 함께 사용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활용하는 교수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메리(2010)에서는 역할극이나 상황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연어를 실제 문맥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최원평(2011)은 연어와 고정표현, 담화 표현 등을 중심으로 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이영제(2014)는 말뭉치 기반 공기어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공기어를 의미 부류별로 조직하였다. 김규훈(2015)은 플립드 러닝 기반 연어 교육을 통해 역할극과 상황 활동 속에서 연어

를 실제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임춘매(2017)는 ‘나다’, ‘들다’와 결합하는 언어 표현을 말뭉치 기반으로 분석하여 의미 범주와 결합 관계 중심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부 연구가 언어 관계의 분석과 유형화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이를 교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휘를 실제 사용 기반의 결합 관계 속에서 조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과 담화 적절성을 높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연구로 갈수록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 빈도와 공기 관계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제·어휘장 중심 조직은 특정 생활 주제나 문화 범주를 중심으로 관련된 어휘를 조직하여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어휘를 개별 단어로 제시하기보다 음식, 명절, 쇼핑, 요리 등 특정 주제 안에서 의미적으로 연결된 어휘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미망 형성과 실제 사용 능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양혜(2008)는 특정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어휘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연관된 어휘들을 함께 학습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금현(2011a, 2011b, 2012)는 어휘장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 시간, 신체 감정, 음식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의 어휘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뒤, 그림 자료, 의미망 연결하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학습자가 어휘 간 관계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김보은·박중호(2015)는 ‘물건 사기’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 어휘를 분석하고 코어넷 기반 의미 체계를 활용하여 어휘장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연구로 김하나(2020)는 명절 어휘를 음식·놀이·행사·의복 등의 범주로 조직하고, 체험 활동을 함께 활용하여 실제 문화 맥락 속에서 어휘를 학습하게 하였다. 또한 장석진(2021)은 요리 문화체험과 연계하여 음식명·재료·조리도구·조리방법 등을 하나의 요리 어휘장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활동지와 영상 자료, 문장 생성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 조리 과정 속에서 관련 어휘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유형은 특정 생활·문화 주제를 중심으로 어휘를 조직함으로써 학습자가 관련 어휘를 실제 상황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연구로 갈수록 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과 어휘 교육을 연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연구는 범주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사용 맥락보다는 분류 체계 자체에 초점이 치우치는 한계를 언급하기도 한다.

구문·사용 맥락 중심의 조직 연구는 어휘를 문장 구조와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조직하여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이설연(2016)은 ‘어휘-구문 상호 학습’ 방안을 제안하면서, 어휘를 통사 구조와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는 통합 관계 구문, 통사구문, 양태구문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장 생성 과정 속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혜연·우인혜(2022)는 초성 게임 활동 속에서 상위어, 연상어, 호응 서술어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심성어휘집을 활성화하고 실제 사용 맥락 속 어휘 인출을 돕고자 하였다. 전정(2024)은 문화 어휘를 생활 문화, 언어문화, 관념 문화 등으로 조직한 뒤, 역할극·체험 활동·비교 활동 등을 통해 실제 문화 맥락 속에서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직 차원에서의 연구는 양이 많지 않지만, 어휘가 특정 구문과 결합하며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휘와 문장 구조, 사용 상황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활동 중심 수업 설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 실제 학습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개별적인 조직 방식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집중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양한 어휘 관계를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도록 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심지연(2022)은 어휘 지식이 단순한 의미 이해를 넘어 실제 맥락 속에서 다른 어휘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반복적으로 활성화될 때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어휘 ‘조직’ 또한 개별 관계의 제시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담화와 과제 수행 속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어휘 관계를 실제 의사소통 맥락 속에서 연결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어휘 조직 및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향후 연구 과제 제언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조현용(2000)의 게임 활용 어휘 교육 연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63편이 축적되었으며, 초기에는 어휘 게임, 의사소통 중심 어휘 교육, 어휘 숙달, 연어 학습 등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수방안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어휘장, 의미 관계, 문맥초점화, 연어·공기어 등 어휘 간 관계와 실제 사용 맥락을 반영한 연구가 확대되었고, 학습 전략과 수업모형, 매체 활용 연구도 점차 등장하였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모바일 앱, 쿼즐렛, 멀티미디어, 웹 기반 학습 시스템 등 디지털 매체 활용 연구와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모형 연구가 증가하면서, 학습자 중심, 전략 중심, 매체 기반, 실제 사용 맥락 중심의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지식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의미 지식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어 사용 지식, 형태 지식, 통사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지식 연구는 형태와 의미의 연결, 다의어·동음이의어의 의미 변별, 유의어·반의어 등 관계어 의미, 어휘장·어휘망을 통한 의미 조직화, 문화어휘·관용표현·비유 의미, 감정·감각·평가 어휘, 주제별 어휘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사용 지식 연구는 어휘가 실제 의사소통과 표현 활동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는가에 초점을 두며, 어휘 사용 전략, 오류 분석, 관용표현, 문화어휘, 목적별 어휘, 매체 기반 학습 등을 포함하였다. 형태 지식 연구는 단어 형성법, 파생어, 접사, 한자어 구조, 신어 형성 원리 등 단어 내부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통

사 지식 연구는 문형, 논항 구조, 호응 관계 등 문법 교육과의 경계에 놓여 있어 어휘 교육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언어·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어휘 지식 차원별 분석 결과,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심화 차원이 74편(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확장 차원 31편(19%), 강화 차원 28편(17%), 조직·통합 차원 23편(14%), 여러 차원을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 7편(4%)의 순으로 나타났다.

확장 차원의 연구는 매체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한자어·모어 대조, 실제 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에 모바일, 웹 기반 학습 같은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학습 목적과 실제 사용 맥락을 반영한 어휘 확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화 차원의 연구는 형태 및 어중·의미 관계·주제·결합 표현·학습자 사용 및 전략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최근 2020년대는 확장 차원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어와 K-POP, 공공 어휘 등 실제적이면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학습자 사용 및 전략 중심’ 연구가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화 차원의 연구는 크게 어휘 사용·산출 유창성 중심, 게임·흥미·감각 기반 반복, 어휘 학습 전략·자기 조절학습 중심, 디지털 도구 기반, 어휘 관계·개념망 중심, 문화·맥락 기반 사용 중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이 기억, 흥미, 전략 사용, 산출 능력 등을 다루어 왔지만, 어휘 지식의 정확성, 인출 속도, 산출 유창성, 장기 기억 유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조직 차원의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어휘를 개별 단어가 아닌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개별적인 어휘의 조직 방식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집중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어휘 관계를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도록 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며, 어휘 교육에 있어서의 어휘 지식과 어휘 지식의 교육 차원을 고려한 향후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휘 지식의 다차원성과 개발 모형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의미 지식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 지식, 형태 지식, 통사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가 어휘의 의미 이해와 의미 변별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왔음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형태 지식, 통사 지식, 사용 지식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휘 개발 모형(Nation, 2020; 심지연, 2022)에 따르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형태, 의미, 통사,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심지연(2022)은 학습자의 어휘 지식에 존재하는 역치와 기억 루트를 밝히고,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의 발달 과정 속에서 형태 지식과 의미 지식, 통사 지식과 사용 지식까지 지식을 확장하고 공고화하는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연구는 의미 지식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심지연(2022)⁶⁾이 밝힌 실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에서의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미 지식 중심의 접근을 넘어 형태 지식, 통사 지식, 사용 지식을 균형 있게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개발 모형에 근거하여 어휘 지식의 유형과 확장, 심화, 강화, 조직·통합의 차원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현재 일부 연구에서 전반적인 어휘 지식이나 교육 차원을 다루고 있으나, 체계적인 어휘 지식 발달 과정이나 개발 모형에 기반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참여, 어휘 내재화 과정을 검토하는 실증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교수 활동과 수업

6) 심지연(2022:145)에서 의미 정보 중심으로 어휘를 교수하고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의미 정보에 한정하여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형, 매체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학습자의 어휘 발달과 실제 사용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최근 해외 어휘 교육 연구가 학습자의 참여, 반응, 산출 경험, 어휘 유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Ebadi et al., 2023; Ilham et al., 2023; Kurniawati et al., 2024),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서도 실험 연구, 수업 관찰, 학습자 인터뷰, 산출물 분석, 지연검사 등을 활용하여 교수방안의 효과와 학습자의 어휘 내재화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어휘 학습 과정과 전략을 다루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심화 차원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형태 및 어종, 의미 관계, 주제, 결합 표현 등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학습자의 실제 어휘 사용 양상과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강화 차원의 연구에서도 전략 교육과 자기조절학습이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연구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자기조절 능력, 어휘 학습 전략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어휘 학습은 교사가 제시한 어휘를 수용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를 발견하고, 의미를 추론하며, 기억하고, 점검하고, 실제 표현 활동에 활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주도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전략적 학습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 국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과 학습전략의 효과를 다루었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어휘 학습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Xodabande et al., 2022), 어휘 학습전략의 교수 프로그램이 더 높은 어휘 습득의 향상을 보이는(Khalifa & Shabdin, 2016) 등의 연구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Nation(2013)이 어휘 학습이 의미 이해뿐 아니라 반복 노출, 전략 활용, 실제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과, Oxford(2017)가 자기조절 전략이 언어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 것과도 관련된

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언어권, 숙달도, 학습 목적, 정의적 요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휘 학습 전략과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 능력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디지털 기술과 AI 기반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모바일 앱, 퀴즐렛, 멀티미디어, 웹 기반 학습 시스템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특정 매체나 앱을 활용한 교수방안 제시에 집중된 경우가 많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 학습 목적, 어휘 지식 발달 양상에 맞춘 개별화된 어휘 학습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최근 국외에서는 AI 챗봇, 생성형 AI, 자동 피드백 시스템, AI 기반 어휘 학습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제2언어 어휘 학습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hnke, Moorhouse, and Zou(2023)는 생성형 AI가 언어 학습자의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Viberg, Khalil, and Baars(2023)는 AI 기반 언어 학습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기술 기반 어휘 교수·학습 연구를 넘어 AI 기반 맞춤형 어휘 학습, 어휘 피드백, 반복 학습, 산출 연습, 장기 기억 관리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어휘 지식 유형과 교육 차원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동향을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어휘 교수·학습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될 수 있는 논의 및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화,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호, 이중언어학회, 2011, 453~479쪽.
- _____,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 『언어와 문화』 9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1~38쪽.
- 강혜림, 「부정성을 가진 부사의 호응 정보와 부사 어휘 제시 방안 - ‘전혀’와 ‘별로’를 대상으로 -」, 『한국어문화교육』 4권 1호,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0, 25~52쪽.
- 구본관,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연구 - 유사 접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40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1~47쪽.
- 김경숙, 「외국어로서의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모색 -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7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0, 20~31쪽.
- 김정은·엄소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대단하다 류’의 유의어 의미 변별 연구 - ‘대단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엄청나다, 굉장하다’를 중심으로 -」, 『언어 사실과 관점』 63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4, 63~102쪽.
- 김규훈, 「플립드 러닝 기반 한국어 어휘 학습의 가능성 모색 - 언어(collocation)를 중심으로 -」, 『문법 교육』 24권, 한국문법교육학회, 2015, 29~56쪽.
- _____, 「한국어 어휘 수업에서 ‘생태학적 언어 교수 전략’의 활용 가능성」, 『한국언어문화학회』 15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158~179쪽.
- _____,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 방안 -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을 바탕으로 -」, 『민족연구』 84호, 한국민족연구원, 2024, 158~179쪽.
- 김덕신, 「파생어 교육을 통한 어휘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한국어 학습자의 접사 분석 실태를 중심으로 -」, 『반교어문학회』 108권, 반교어문연구, 2017, 225~248쪽.
- _____, 「한국어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이용한 신조어 수업 방안 연구」, 『어문연구』 108권, 어문연구학회, 2021, 195~221쪽.
- 김메리,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연상 패턴과 언어 학습 활동 개발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0, 1~21쪽.
- 김명희·정윤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글』 83권 1호, 한글학회, 2022, 243~276쪽.

- 김미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7권 1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24, 51~77쪽.
- 김보은·박종호, 「한국어교육을 위한 초급 교재에서의 어휘장 구축에 관한 연구 - ‘물건 사기’ 주제를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10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281~323쪽.
- 김보현,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 연구」, 『어문논집』 56권, 중앙어문학회, 2020, 363~389쪽.
- _____,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한국어교육 적용 가능성 연구 - 고급 학습자를 위한 신어-문화 통합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 『배달말』 75권, 배달말학회, 2024, 181~217쪽.
- 김선희,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언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44호, 이중언어학회, 2010, 25~47쪽.
- 김성희,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수에서의 어휘교육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5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8, 41~45쪽.
- 김수희, 「중국인 초급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 기본어휘에 나타난 한자어휘를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권,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4, 65~86쪽.
- 김원경,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방안」, 『한성어문학』 29권,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0, 211~231쪽.
- 김유정, 「한자음 교수를 통한 한자어 교육 연구 - 일본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인문연구』 67권, 인문과학연구소, 2013, 373~406쪽.
- 김은화,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속담과 관용어 교육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3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8, 35~42.
- 김지애, 「초등학교 입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도구어 선정 및 교육」, 『이중언어학』 44권, 이중언어학회, 2010, 129~155쪽.
- 김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사용 양상에 따른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학』 53권, 한국어학회, 2011, 195~215쪽.
- 김춘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수록된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집』 10권 7호,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 633~649쪽.
- 김하나,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 명절 어휘 교육 방안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81권, 민족어문학회, 2020, 303~333쪽.
- 김희경, 「한국어와 일본어 접미사의 대조적 특징을 활용한 교육 방안」, 『인문학연구』 44권,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93~228쪽.

- 나은미, 「유추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학』 40권, 한국어학회, 2008, 177~202쪽.
- 나카가와 아키오, 「한국어 언어 교육 연구 - {체언+용언}형 언어를 중심으로 -」, 『선청어문』 38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0, 253~288쪽.
- 노정은·장미정,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위한 감정 어휘 교육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767~793쪽.
- 동뢰, 「확장 의미 단위(EUM) 기반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탐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105~132쪽.
- 류투안,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어휘력 향상 방안 모색 - 한자음을 중심으로 하여 -」, 『언어사실과 관점』 27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1, 173~208쪽.
- 마금선,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어휘교육 연구 -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6권, 국어교육연구소, 2010, 179~205쪽.
- 마릉연, 「한국어 유의어 변별 교육 - 틀 의미론 적용을 중심으로 -」, 『우리말교육 현장연구』 9권 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5, 243~270쪽.
-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連語)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217~250쪽.
- _____,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30호, 이중언어학회, 2006, 143~177쪽.
- _____,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6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109~135쪽.
- _____,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a, 7~47쪽.
- _____, 「인간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언어와 문화』 7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b, 85~110쪽.
- _____, 「음식어휘장의 분류 기준을 활용한 한국어 음식 어휘 교육」, 『새국어교육』 91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41~78쪽.
- _____, 「변화된 영어의래어에 대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어국문학』 193호, 국어국문학학회, 2020, 515~541쪽.
- 문희진·손경애, 「다문화가정 이동을 위한 동화 활용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촉각 형용사를 중심으로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217~239쪽.
- 미시라 하시 쿠마르, 「인도 한국어학과와 한자 한자어 교육 현황과 인도인 한국

- 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어문논총』 33권,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8, 5~43쪽.
- 박상숙,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의 의미 제시 방안 연구 - ‘가’음이 포함된 한자어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5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475~494쪽.
- 박세영, 「유의어 쌍의 의미 분석을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인문과학논집』 21권,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27~149쪽.
- 박세진, 「外國人을 위한 韓國語 教育에서 바람직한 漢字·漢字語教育의 方案I」, 『漢文教育論集』 43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401~424쪽.
- 박수진·백선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어 학습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5, 293~316쪽.
- 박숙자, 「어휘교수와 한국어교육」,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3, 303~316쪽.
- 박영환, 「한국어 동음어 교육의 실제 - 최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한국언어문학』 84권, 한국언어문학회, 2013, 95~123쪽.
- 박영희·오성아·노하나, 「케이팝(K-pop)을 활용한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 연구 -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48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51~376쪽.
- 박유진, 「‘지금’과 ‘이제’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연구」, 『우리말 글』 83권, 우리말글학회, 2019, 65~98쪽.
- 배윤정, 「말뭉치 분석을 통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 연구」, 『인문사회 21』 13권 3호, 인문사회 21, 2022, 803~818쪽.
- 소열녕, 「다국적 학습자를 위한 LBH 한자어 학습교수법 - 학문목적 한국어 읽기 수업을 적용 사례로 -」, 『인문과학』 83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151~176쪽.
- 손남익, 「문화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교육」, 『한국어 의미학』 50호, 한국어의미학회, 2015, 211~231쪽.
- 손만복·박덕유,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3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27~42쪽.
- 손유진·김억조,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맴다’의 의미 연구」, 『국어교육연구』 83호, 국어교육학회, 2023, 79~105쪽.
- 손유진·장혜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대응 분석을 통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 『함께 배워요 한국어 1』의 분석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76호, 국어교육학회, 2021, 35~56쪽.
- 송대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도깨비> 속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권 5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181~191쪽.
- 송향근·고건, 「한국어 사자성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13호, 한국사전학회, 2009, 171~189.
- 수시아,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어휘 선정 및 교육 방안」, 『국어교육연구』 81권, 국어교육학회, 2023, 131~165쪽.
- 신정아, 「단편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리텔링(retelling)을 중심으로 -」, 『동아인문학』 51권, 동아인문학회, 2020, 257~288쪽.
- 신현규, 「모바일 기반 한국어의 한자 어휘교육 콘텐츠 연구 -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2권 2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0, 185~202쪽.
- 신현숙,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동악어문학』 56권, 동악어문학회, 2011, 449~479쪽.
- 신희삼, 「단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교육의 방안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74권, 한국언어문학회, 2010, 61~89쪽.
- 심지연, 「한국어 교육에서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_____, 「인지심리학과 한국어 어휘 교육의 접점 탐색 - 기억의 ‘부호화’ 관련 논의의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130권, 한국언어문학회, 2025, 269~292쪽.
- 심형철·심혜령, 「정착목적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학습 어휘 콘텐츠 구축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6권 6호,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2011, 111~119쪽.
- 심혜령, 「국어학: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 대한 어휘 교육 연구」, 『겨레어문학』 41권, 겨레어문학회, 2008, 89~116쪽.
- 오은화,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동향 분석 -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57~82쪽.
- 왕영·이지은, 「백워드 설계와 내러티브를 활용한 한자어 교육 단위 설계 방안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12권 3호,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24, 59~90쪽.
- 원미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전학』 15호, 한국사전학회, 2010, 194~219쪽.
- _____,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 모색」, 『한국어교육』 22권 2호, 국제한국

- 어교육학회, 2011, 255~279쪽.
- _____,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학습자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문법 교육』 3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17, 281~309쪽.
- 유윤·김정아,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신체어 합성명사의 의미 교육 연구」, 『한민족어문학』 90호, 한민족어문학회, 2020, 165~197쪽.
- 유경민, 「개념 은유를 활용한 한국의 어휘·문화 교육 -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 은유를 중심으로 -」, 『한국어 의미학』 26권, 한국어의미학회, 2008, 153~182.
- 유지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 의미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8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153~182쪽.
- 윤창숙, 「다중 지능 이론을 활용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연구 - 미각·촉각 어휘를 중심으로 -」,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4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20, 291~317쪽.
- 이경, 「한국어 유창성 신장을 위한 어휘 사용 전략 연구 - 한국어 고급 학습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27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149~175쪽.
- _____,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유형 분류 및 교육 방안 - 매개활동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65권 13호, 한말연구학회, 2024, 1~18쪽.
- 이경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좋다’ 구문의 특성과 교육 정보」, 『어문연구』 86권, 어문연구학회, 2015, 5~36쪽.
- 이관식, 「어휘 구조 이해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 파생어 분석과 인칭접미사의 어원 이해를 통한 어휘 습득을 중심으로 -」,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3, 277~302쪽.
- 이래호, 「한국어 교육에서의 신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학 연구』 20권,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 155~178쪽.
- _____,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원 정보의 활용에 대한 연구」, 『영주어문』 43권, 영주어문학회, 2019, 353~377쪽.
- 이미영,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제안 -말뭉치 어리, 패턴, 상용표현 활용 방안-」, 『외국어교육』 19권 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2, 415~441쪽.
- 이민우,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9권, 이중언어학회, 2012a, 219~242쪽.
- _____, 「의미 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언어학연구』 22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2b, 163~177쪽.
- _____, 「의미관계를 이용한 어휘교육의 효과 연구 -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

- 『한국어 교육』 26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165~190쪽.
- _____, 「의미관계에 따른 문맥초점화가 어휘 학습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대학 유학생의 학문목적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50권, 반교어문학회, 2018, 13~39쪽.
- _____, 「의미적 관련성을 이용한 어휘 교육의 효과 연구 - 유의관계와 주제관계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66권, 이중언어학회, 2017, 27~47쪽.
- 이박문·박덕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자어 분석 및 교수·학습 모형 연구」, 『교육문화연구』 27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1, 425~459쪽.
- 이박문·박덕유·단채미, 「비한자문화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 TOPIK 초급 한자어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102권, 어문연구학회, 2019, 203~242쪽.
- 이설연, 「‘어휘-구문 상호 학습’ 교육 방안 - 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13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85~107쪽.
- 이숙진·민진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성어·의태어 선정과 교육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권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803~817쪽.
- 이양혜, 「한국어 신체관련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확장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권 1호, 한중인문학회, 2008, 187~201쪽.
- _____,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특이파생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권, 우리말학회, 2011, 315~342쪽.
- _____, 「한국어 ‘먹다’의 다양한 기능과 의미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30권, 우리말학회, 2012, 297~325쪽.
- 이연정·이주미, 「한국어 유의어 사용실태 분석에 따른 교육 방안 연구 - ‘이용하다’와 ‘사용하다’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81권, 중앙어문학회, 2020, 375~412쪽.
- 이영재, 「고빈도 명사 공기어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언어와 정보 사회』 23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4, 189~214쪽.
- 이유경,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지식 평가를 통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질적 지식의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2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161~182쪽.
- 이은희, 「한국어 맛 표현 어휘의 교재 제시 양상 및 개선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64권, 한중인문학회, 2019, 111~133쪽.
- 이준호,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사 -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 『문법 교육』 9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08, 305~336쪽.
- 이지영,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연구의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18권 2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1093~1117쪽.
- 이지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파생어 교육」, 『이화어문논집』 27권, 이화어문학회, 2009, 159~172쪽.
- 이채영, 「한국어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이중언어학』 89권, 이중언어학회, 2022, 169~192쪽.
- 이홍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83~198쪽.
- 이효정,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 - 감정 어휘 목록 작성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5, 271~302쪽.
- _____,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 - 유의어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의 교육 정보 구축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6, 281~308쪽.
- 임서연, 「한국어 문화적 어휘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7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263~284쪽.
- 임채훈,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어교육 입문을 위한 필독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하우, 2025, 347~381쪽.
- 임춘매, 「‘나다, 들다’의 연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한국어 교육』 2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89~112쪽.
- 장석진, 「요리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방안 연구 - 요리 문화체험 전 활동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59권, 한국중원언어학회, 2021, 135~155쪽.
- 장은미, 「문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의 효과 연구」, 『태릉어문연구』 16권,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10, 173~192쪽.
- 전정, 「문화 어휘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권 1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291~305쪽.
- 정수진,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문화와융합』 31권,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09, 29~54쪽.
- 정수진·김진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프랑스어 교재의 문화항목 비교 및 어휘 교육방안 연구」, 『언어연구』 32권 2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16, 315~340쪽.
- 정연숙·이병운, 「Pwim 활용 한국어 초급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2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8, 325~344쪽.
- 정연희·박근영·정은주·김승연·신영자·백인선, 「전공 기본 한국어 어휘 학습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실제」, 『외국어교육연구』 37권 4호, 2023,

외국어교육연구소, 171~194쪽.

정유남, 「SIOP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한국어정보학』 14권 2호, 한국어정보학회, 2012, 115~139쪽.

정주안, 「한국어교육에서의 어휘교육 방안 연구 동향 고찰: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정해권·서강보·신수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심성어휘집 연결에 대한 모어 영향 연구」, 『언어와 문화』 17권 2호,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2021, 199~226쪽.

조현용,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2000.

_____, 「어휘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2005, 41-71쪽.

조형일, 「행위와 상태의 서술 접사 ‘-하다’에 초점을 둔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의 원리 일고」, 『국어교육』 173호, 한국어교육학회, 2021, 271~297쪽.

조형일·한용혁,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 환유 표현의 교육 원리와 방안 일고」,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39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21, 107~128쪽.

조혜연·우인혜, 「어휘장이론을 활용한 초성 게임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243~256쪽.

채은경·강이경,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교육 연구 - ‘아깝다’, ‘아쉽다’, ‘안타깝다’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3권 26호, 한말연구학회, 2022, 1~25쪽.

최원평, 「한국어어휘교수에서의 어휘접근법사용과 그 방법」, 『중국조선어문』 171권, 중국조선어문편집부, 2011, 39~43쪽.

한수민·김규훈, 「역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방향 - 한국어 학습자의 역번역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 『현대사회와 다문화』 13권 1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3, 151~172쪽.

한위성,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4, 187~202쪽.

한운정·정성호·전홍화, 「질적 어휘 지식 향상을 위한 병렬 텍스트(Parallel Texts) 과제 활용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485~516쪽.

함은주,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전략 연구 동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허예인·조현용,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동향 -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20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3, 211~248쪽.
- 홍은진,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5호, 이중언어학회, 2004, 331~358.
- 화택화·박덕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비즈니스 어휘 선정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61~80쪽.
- 황유미·계문합, 「어휘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어휘교육 방안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7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2, 185~211쪽.
- 최홍열,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일고찰」, 『어문론집』 83권, 중앙어문학회, 2020, 485~522쪽.
- Ahmad Radzuan, F. A., and Mohd Arif, M., “Vocabulary Learning Research in ESL/EFL: A Bibliometric Review of Trends, Innovations, and Gaps”, *AJELP: Asi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Pedagogy*, Vol. 13, No. 2, UPSI Press, 2025, pp. 46-67.
- Angela Lee-Smith,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7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459~497쪽.
- Ebadi, S., Z. Amini, and N. Gheisar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Based Extramural Activities and Vocabulary Development of EFL Learners: A Mixed-Method Study”, *Smart Learning Environments*, Vol. 10, SpringerOpen, 2023, Article 33.
- Feng, D., “A Critical Bibliometric Review of Technology-Enhanced Vocabulary Learning: Uncovering a Decade of Tensions and Trends”, *Sage Open*, Vol. 15, No. 4, SAGE Publications, 2025, pp. 1-15.
- Ilham, M., F. Rahman, D. D. Sari, and A. Annisaturrahmi, “Enhancing Preschool English Vocabulary Through Multimedia Tools: Insights from a Mixed-Methods Study”, *Al-Athfal: Jurnal Pendidikan Anak*, Vol. 9, No. 2, UIN Sunan Kalijaga Yogyakarta, 2023, pp. 93-102.
- Khalifa, Salma H. M., and Ahmad Affendi Shabdin, “Autonomy in Vocabulary Learning: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ogramme for EFL Libyan Learners”, *Arab World English Journal*, Vol. 7, No. 1, Arab Society of English Language Studies, 2016, pp. 140-159.
- Kohnke, L., B. L. Moorhouse, and D. Zou, “ChatGPT for Language Teaching and

- Learning”, RELC Journal, Vol. 54, No. 2, SAGE Publications, 2023, pp. 537-550.
- Kurniawati, L. A., P. Widodo, and E. Andriyanti, “Engaged Learners, Enhanced Vocabulary? A Qualitative Analysis of Indonesian L2 Engagement through Self-Made Video Projects”, Journal of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Vol. 12, No. 3, SlovakEdu, o.z., 2024, pp. 47-56.
- Mohd Zainol, S. N. H., Yaacob, A., Shaik Abdullah, S., Ab Rahim, I. S. and Alsaraireh, M. Y., “Connecting the Dots: Bibliometric Trends in Vocabulary Teaching and Technology”, Discover Education, Vol. 4, Springer Nature, 2025, Article 497.
- Nation, I. S. P.,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Oxford, R. L., 『Teaching and Researchi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Self-Regulation in Context』, 2nd ed., Routledge, 2017.
- Radzuan, F. A. A., & Arif, M. M., “Vocabulary Learning Research in ESL/EFL: A Bibliometric Review of Trends, Innovations, and Gaps”, AJELP: Asi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Pedagogy, Vol. 13, No. 2, Universiti Pendidikan Sultan Idris Press, 2025, pp. 46-67.
- Viberg, O., M. Khalil, and M. Baar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I in Language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4, Elsevier, 2023, Article 100134.
- XIA WAN,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착하다’의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2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385~399쪽.
- Xodabande, Ismail, Asqar Pourhassan, and Mohammadreza Valizadeh, “Self-Directed Learning of Core Vocabulary in English by EFL Learners: Comparing the Outcomes from Paper and Mobile Application Flashcards”, Journal of Computers in Education, Vol. 9, No. 1, Springer Nature, 2022, pp. 93-111.

Abstract

Research Trends in Korean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 Focusing on Types and Dimensions of Vocabulary Knowledge

Lee, Hye Jin

(Korea University)

Yea, Seung Hyeon

(Korea University)

Lwin, Thin Yadanar

(Korea University)

Ryu, Je Hu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163 studies on Korean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published from 2000 to 2025, focusing on vocabulary knowledge types and educational dimensions. The results show that teaching-method studies were generally dominant, while semantic knowledge and the depth dimension appeared most frequently. Since 2020, studies reflecting digital media, learner participation, and authentic use contexts have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on multidimensional vocabulary knowledge, learner experience, AI-based learning environments, and assessment tools.

Keywords: Korean vocabulary education,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knowledge, research trends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의 동향 분석 ·
이혜진·여승현·띤예다나윈·류제훈 199

이혜진(제1저자)

소 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hyejin0127@korea.ac.kr

여승현(제2저자)

소 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eungyea2025@gmail.com

띤예다나윈(제3저자)

소 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thinyadanarlwin2499@gmail.com

류제훈(제4저자)

소 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lucasryu98@gmail.com

논문투고일 2026. 05. 17 / 심사완료일 2026. 06. 12 / 게재결정일 2026. 06. 14